

“예방 중심 해양 구조 시스템 구축 앞장”

‘취임 1년’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

데이터 기반 사고 위험 분석·대응
퀵레뉴비아2호 267명 전원 구조
“스마트 해양 치안 체계 완성할 것”



머물던 기존의 치안 시스템을 ‘사고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과거 관할 해역의 사고 데이터를 총망라해 기상 조건, 선박 종류, 발생 시간, 해저 지형과의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하는 ‘해양 사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고 다발 사각지대에는 계절별 위험 요인에 맞춰 경비함정을 선제적

으로 배치하고 맞춤형 예방 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 사고 위험이 극대화되는 동절기에는 선내 전열기 사용 실태 점검과 외국인 선원을 위한 다국어 안전 수칙 배포 등 세밀한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지휘 철학과 위기 대응 역량은 대형 해상 사고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해 11월19일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인6천급 대형 여객선 퀵레뉴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심이 얕아 대형 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약조건 속에서도 채 서장은 지체 없이 ‘릴레이 식 구조’ 작전을 지시했다. 소형 연안구조정을 여객선에 밀착시켜 승객

을 태운 뒤 대기 중인 함정으로 옮기는 고난도 작전 끝에 단 3시간10분 만에 267명 전원을 인명 피해 없이 구조했다. 이는 평소 복합 해양 사고를 가정한 반복 훈련과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가 빛어낸 완벽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채 서장은 취임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미래 지향적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채수준 서장은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정밀한 스마트 해양 치안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관내 지형에 특화된 훈련 강도를 한층 높여 서남해 해양 구조 명가로 확고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경찰, 청소년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담양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1일 유관 기관·사회단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중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학교폭력은 물론 신종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 담양군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이 함께했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을 비롯해 김영일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조영훈 담양중 학생회장 등은 ‘친구사랑 YES, 학교폭력 NO! 학교폭력 예방 후호를 함께 제창하고,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빛고을청춘대학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빛고을청춘대학 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1일 광주솔로몬로파크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시니어 대상 맞춤형 노후 생활지원 법교육을 통한 실버세대 권익보호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소찬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법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시니어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상황

이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노후생활 관련 법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훈 광주빛고을청춘대학 학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솔로몬로파크와 함께 빛고을청춘대학에 재학 중인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12일 ‘2026년 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발간식을 열었다. 이번 사례집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운영 중인 특화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조사연구 자료다.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4주기 평가에서 새롭게

도입된 특화 프로그램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운영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 제작에는 지역아동센터 현장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원고 검토와 내용 보완, 사례 정리 등 전 과정에 함께했다. 최강남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농기계안전 캠페인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는 12일 ‘영농철을 맞아 전남 도초농협과 신안 도초면 라포리 마을회관에서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재해 없는 농촌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농기계 주요 사고 사례 전파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작업 전후 철저한 점검과 음주 조작 금지,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방현용 지부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니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도초농협 조합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농작업 중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안=양훈기자



광주대, 中 동양중학교 방문 ‘교류 협력’ 확대 논의

광주대학교는 지난 11일 중국 솔양현 동양중 학교를 방문해 양 기관 간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대에서는 김동진 총장과 김지혁 학생지원처장, 최지수 국제협력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동양중학교에서는 범위 이사장과 이진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광주대 방문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400여명의 동양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소개와 한국 유학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 교육 비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방향을 설명하며 학업과 진로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박선욱기자



순천 청암대-외식기업 신화정 ‘산학협력’ 협약

순천 청암대학교는 “최근 교내 청암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외식기업인 신화정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홍 총장 직무대행과 김미자 신화정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 산학협력 교육과정 공동 운영, 산업체 전문가 특강, 시설 장비 공동 활용, 외식·조리

분야 공동 연구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미자 신화정 대표는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자 기부를 결심했으며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홍 총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경기에도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쾌척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며 “학생 교육과 대학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천=양홍렬기자



광주북부경찰, 프로아구시범경기압도단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프로아구 시즌 개막을 맞아 시범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포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기아타이거즈 시범경기가 열린 기아 챔피언스필드 일대에서 이뤄졌다.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압포 거래 근절과 기초질서 준수 홍보를 병행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프로아구 경기와 관련한 압포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정형렬 이서이엔씨 대표이사, 장애인체육 후원금 기탁

정형렬(사진 왼쪽) 이서이엔씨 대표이사는 12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발전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 기탁은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포용적 사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정 대표이사 개인이 지원했다. 정 대표이사는 발전위원회 1-2기(2024-2025년)에 이어 3기 발전위원회(2026)까지 3년 연속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추진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후원금은 우수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지원, 국가대표급 선수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꿈나무 장애학생 선수 및 사각지대 저소득 선수 육성 지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정형렬 이서이엔씨 대표이사는 “발전위원회 1기부터 장애인체육회와 인연이 돼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광주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국립나주박물관, ‘마한 고도 지정’ 민·관·학 MOU

국립나주박물관은 “최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반남권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마한 고도 지정을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나주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호남고고학회, 반남마한유적보존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마한사 규명에 나선다. 단체들은 이날 중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7월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당위성을 확보한 뒤 오는 11월 국가유산청에 고도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마한 문화 규명과 고도 지정 추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지역

문화가 상생 발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마한 권역은 반남고분군, 자미산성 제사터 등 독자적 문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고도 지정 요건을 갖춘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나주=정정환기자

부음

▲설동모씨 별세, 설정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씨 부친상=발인 13일(금) 오전 9시 광주 북구 구오전정례식장 별관 VIP실 (062-960-4444)